

《자유연제 V 15:20 ~ 16:10》

관절내 병변과 동반된 상부관절순의 반월상변형
Meniscoid-type superior labrum
associated with Internal derangement of Shoulder Joint

최창혁 · 권광우 · 김신근 · 이상욱 · 박범진
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

서 론

견관절은 볼 소켓관절로써 광범위한 운동영역을 요하며, 따라서 슬관절과 같은 체중부하 관절에서 볼 수 있는 반월판(meniscus)조직이 필요 없다고 알려지고 있다. 최근 견관절에 대한 관절경검사를 통해 상부관절순이 신장되어 반월판 모양으로 있는 것이 보고되고 있으나, 발생빈도 및 관절내 다른 병변과의 관련성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고가 없는 실정이다. 또한 이러한 변형이, 반복적인 거상운동등 특정한 환경에서의 적응변화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. 본 저자들은 회전건개손상 및 견관절의 불안정성을 보이는 4례의 환자에게서 상부관절순의 반월상 변형과 함께 관절내 구조물의 변화 및 internal impingement의 소견을 관찰하였으며, 이러한 변화의 의의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.

연구대상 및 방법

본 교실에서 1997년 1월에서 1998년 12월까지 견관절의 병변에 대해 관절경적 검사 및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는 재발성 전방탈구 20례, 충돌증후군 및 회전건개 파열 17례, 석회화건염 5례, 기타 견관절의 SLAP 및 관절인대손상등으로 불안정성 및 동통을 호소하여 관절경 검사를 시행한 8례등 총 50례 였으며, 이중 이학적검사 및 MRI촬영상 회전건개 및 전방관절순 손상으로 생각되었던 2례, 전방견관절 불안정성 1례, 그리고 SLAP II 병변으로 판독되었던 1례에서 상부 관절순의 반월상 변화를 보였다.

결 과

이들 증례에 대한 분석 결과, 반월상 상부관절순은 정상변형(normal variant)으로 생각되지 만 과도한 외전운동 및 관절내 다른 병변으로 인한 손상이 동반될 경우 재조절(Reshaping)을 요하며, 이 경우 슬관절처럼 반월판의 부하감소효과(load bearing effect)를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다.